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 1주년을 넘겨 두 번째 해를 맞고 있습니다.
'희망세상' 은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뜻에서 박형규 이사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형 규

기념사업회 출범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사업회가 2001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이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사업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민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지만 이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외인사 초청사업은 고난을 함께 했던 분들이 크게 기뻐하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사료 전국순회전시회 역시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학술 심포지움도 수준 높은 논의가 진행되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금년에는 기념관 건립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난 해 말 기획예산처에서 대규모 국가지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대상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기념관은 재원이나 규모의 문제보다는 국민의 기념관으로 자리잡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역사를 보여주는 과거 재현의 박물

관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숨쉬는 기념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기념관 건립은 기념사업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참여, 나아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립 재원 마련에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내용과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특히 새로운 세대에게 민주화운동의 참뜻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나아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금년에 진행되는 주요한 사업은...

지난해 사료수집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수집단계를 지나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소의 경우에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정리해나간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자료정리 등 필요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교육에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시행에 필요한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2-3년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사업회 자체의 능력도 커지고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회 내부에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많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약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해나감과 아울러 헌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민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기념사업회 출범이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주진영은 기념사업회의 존재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잦은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지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만남의 틀을 만들어가면서 비판을 경청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기념사업회와 협력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기념사업회의 궁극적 지향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민주화운동 주체의 공감대를 통해 주체의식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화에 대한 이해,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이해와 의식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해나가는 노력이 곧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민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